

4 일본이라는 거울

특집: 한국인의 일본인식 100년

— 이광수가 본 일본·일본인

윤대석



■ (위) 춘원 이광수

■ (오른쪽 페이지 위 왼쪽부터) 젊은 시절의 이광수, 이광수의 창씨개명 결의를 보도한 『경성일보』 기사(1939. 12. 12), 이광수가 『무정』과 『동경잡신』을 연재했던 『매일신보』의 일제시대 사옥



1. 소설과 상상의 공동체

한국 소설 속에는 일본이 없다.¹⁾ 한국 소설에서 일본인은 성격(character)으로 등장하지 않는다. 일본인이 등장하더라도 정형(stereotype)화되어 있다. 「질소비료 공장」(이북명)의 공장 감독이나 『상록수』(심훈)의 순사처럼 일본인은 한국 소설에서 과도하게 추상화된 존재이다. 이러한 정형성은 사회적 통념과 일치한다. 사회적 통념에 머물지 않고 표상 아래에 잠복해 있는 미묘한 인간 성격의 분석으로 나아간다는 점에 문학의 특징이 있다면, 이러한 현상은 상당히 비문학적이다. 또한 이것은 근대 문학의 상상력이 언어와 민족의 경계를 넘어서지 못하고 그 안에 안주하며 상상의 공동체를 재생산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근대 이후 세계 규모의 식민지화는 대량의 인구이동과 그에 따른 인종과 민족의 잡거를 탄생시켰다. 그러나 이러한 식민지화는 잡거(혼종)와 더불어 공간

* 지은이 | 윤대석 현재 명지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조교수로서, 한국 현대소설론을 가르치고 있다. 우리가 보통 '친일문학'이라고 부르는 1940년대 전반기 문학을 연구하여 서울대 대학원 국어국문학과에서 문학박사를 받았다. 「1940년대 '국민문학' 연구」라는 제목을 가진 박사학위 논문은 '친일'이라는 민족주의적 시각이 아니라 식민주의라는 세계사적 시각에서 일제 말기의 문학과 문학 담론을 살펴본 것으로서 이 시기의 문학과 담론에서 식민주의, 제국주의, 근대주의를 넘어 서려는 시도를 읽어내고자 했다. 최근에는 경성제국대학을 중심으로 한 지식의 생산을 '교양'이라는 개념을 통해 풀어내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지은 책으로 『식민지 국민문학론』, 『근대를 다시 읽는다』(공저), 옮긴 책으로 야마무로 신이치의 『키메라 - 만주국의 초상』 등이 있다.

1) 한국문학에 나타난 일본과 일본인상에 관해서는 윤대석, 「일본과 일본인을 바라보는 분열의 시선, 단일한 시선」, 『대산문학』, 2006년 가을호 참조.

분할도 가져왔다. 식민지 본국에서는 식민지인(the colonized)이 거주하는 게토가 생겨났고 식민지에서는 식민자(the colonizer)가 거주하는 특권적인 공간이 생겨났다. 황해도 개풍 출신인 소설가 박완서는 「내 소설에 나타난 일본인 그리고 식민지 시대」에서 일본인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드물었다고 이야기했는데, 이러한 경험은 경성을 비롯한 대도시를 제외하면 일반적인 현상이었다. 이것이 한국 소설에서 일본이나 일본인이 경찰이나 공무원 같은 공권력이라는 추상적 존재로 드러난 주된 이유라 할 수 있는데, 경성 같은 대도시에서도 이러한 공간분할은 지켜졌다.

소위 남촌과 북촌이라고 불리는 경성의 식민지적 공간분할은 박태원의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에서 주인공 구보 씨로 하여금 명치정(明治町)이나 본정(本町)과 같은 당시의 최첨단 거리를 걷지 못하도록 했다.²⁾ 박태원이 소설 창작의 방법으로 빌려온 곤 와지로(今和次郎)의 고현학³⁾이 당대의 최첨단 풍속을 기록하는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고현학을 배반한 식민지 고현학의 상상력은 민족을 벗어날 수 없었던 것이다. 이처럼 한국 소설에서는 일본이나 일본인을 추방하거나 단일하고 추상적인 존재로 고정시킴으로써 소설적 주체(민족)의 정체성을 형성해 왔다.

물질적인 공간분할과 민족적 공동체의 상상, 이 두 가지 요소는 한국 소설에서 일본과 일본인이 추방된 사정을 엿보게 해준다. 1940년대 이광수가 일본국민이 되는 ‘내선일체’의 두 가지 요건으로 제시한 것은 이러한 공간적·상상적 분할을 넘어서는 것이었다.

군이 만일 동경에 산다면 동경에 있는 조선 학생들을 군의 가정에 불러주지 않겠나. 따뜻하고 깨끗한 군의 가정에서의 하루는 능히 그들 마음의 결빙을 녹일 것이네.

2) 이에 대해서는 윤대석, 「경성의 공간분할과 정신분열」, 『국어국문학』, 2006. 12 참조.

3) 옛것을 연구하는 고고학(考古學, archaeology)에 빗대어 현재를 탐구하는 학문을 고현학(考現學, modernology)이라고 명명한 것은 곤 와지로였다(今和次郎, 『考現學入門』, 筑摩書房, 1987, 358쪽).

그러나 조선에서조차 내지인과 조선인 간의 개인적, 가정적 접촉은 아주 적다네. 관공서나 회사 같은 데서는 친구처럼 보이지만, 서로가 가정에 초대하는 일은 주저하고 있는 듯하네.⁴⁾

조선 병합 이래 조선인이 일본 국민이었음은 말할 것도 없지만, 은근히 문화 단위로 민족 관념을 지지해 왔던 것이었다. 이를 민족주의라고 부르지만, 이 민족주의는 정치적인 것이 아니라 문화적인 것이었으며, 위정 당국도 그런 의미에서 인정해 왔던 것이었다. 즉 언어, 풍속, 관습, 따라서 문학, 사상, 예술, 건축양식, 의상, 예의 등에 있어서 조선인은 민족적 단위를 인정받았다고 생각해 왔던 것이다.⁵⁾

앞의 인용문은 공간적 분할의 문제를, 뒤의 인용문은 상상적 분할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36년간의 식민지 지배로 인해 가능했던 한국인·일본인의 잡거 경험이 서로를 이해하는 데 기여했다기보다 서로에 대한 일그러진 상을 구축하는 데 기여했음을 이를 통해 알 수 있다. 일제 말기 약 10년 동안 시도되었던 ‘내선일체’는 이러한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뿐이었고 1945년의 해방(한국)과 패전(일본) 이후 그렇게 구축된 서로에 대한 상은 고정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확대 재생산되기도 했다.

한국과 일본은 과도하게 추상적이고, 또한 과도하게 일그러진 서로의 상을 설정함으로써 거꾸로 자신의 정체성을 구축해 왔다. 식민지 지배라는, 제노사이드(민족 절멸)와 더불어 근대 국민국가가 자행할 수 있는 최대의 악행이 그것을 가능하게 했고 또 정당화해 왔다. 1892년생인 이광수는 그러한 시대를 앞서 리에서 온몸으로 경험해 왔던 문제적 인물이고, 따라서 그의 일본관을 살펴보는 것은 근대 이후의 한국의 일본관을 살펴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4) 李光洙, 「同胞に奇す」, 『京城日報』, 1940.10.9; 이경훈 편역, 『춘원 이광수 친일문학 전집Ⅱ』, 평민사, 1995, 137쪽.

5) 李光洙, 「朝鮮文藝の今日と明日」, 『京城日報』, 1940.9.30; 이경훈 편역, 『춘원 이광수 친일문학 전집Ⅱ』, 118쪽.

2. 해방과 억압 — 최초의 경험

1892년 평안도 정주 출생인 춘원 이광수가 일본과 처음으로 마주친 것은 1904년 러일전쟁 시기였다. 그의 고향 정주에 러시아군이 몇 개월 주둔하고 있으면서 온갖 행패를 부리다 정주 전투의 패배로 의주 방면으로 물러난 후 일본군이 입성했던 것이다. 이광수는 한 회고록에서 일본군의 정주 입성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일병이 입성하자 피난 갔던 주민들은 이삼일 내에 다 돌아왔다. 일병은 군기가 엄하고 우리나라 사람에게 호의를 보였을 뿐더러, 그 흉악한 아라사를 쫓아 주었다 하여 주민의 환영을 받은 것이었다.⁶⁾

약탈과 겁간을 자행하는 러시아의 군대와 군기가 엄하고 한국인에게 호의를 보인 일본군이 대조되어 서술되어 있는 것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이광수가 처음 만난 일본은 호의적인 해방자였다. 심지어 그는 일본 병정을 구경하러 일부러 읍내에 들르기도 할 정도였다. 이인직의 「혈의 누」(1906)에서 드러나는 야만적인 청군과 문명(해방)적인 일본군의 대조가 여기에서도 반복되고 있는데, 이광수가 동네 어른들의 말을 들었다며 기록한 것에 따르면 평안도 주민들이 청일전쟁에서 경험했던 일본도 「혈의 누」에서 그려지고 있는 일본과 그리 다르지 않았다.

그러나 일본에 대한 이광수의 경험은 이런 호의적인 해방자의 모습에 멈추지 않았다.

어떤 집 앞에 사람들이 모여 선 것이 눈에 띄었다. 나도 호기심을 가지고 사람들의 틈에 끼어서 그들이 보는 데를 바라보았다. 거기는 길다란 종이에 먹으로 쓴

6) 이광수, 「나의 고백」, 『이광수전집』, 삼중당, 1971, 220쪽.

방목이 붙어 있었다. 그것을 읽고 나는 깜짝 놀랐다. 그것은 나를 잡으라는 일본 헌병의 방목이었다.⁷⁾

일본군 헌병이 이광수를 잡으려 했던 것은 그가 동학 조직의 연락책이기 때문이었다. 이후 이광수는 일본 헌병을 피해서 서울로, 그리고 다시 동학의 장학금을 받아 일본으로 유학을 가게 된다. 러일전쟁 당시 동학이 일진회를 중심으로 일본군을 지원하였음은 잘 알려져 있는데⁸⁾ 이광수의 회고는 이러한 역사적 기술과는 달라 주목된다. 한국 정부의 탄압을 일본군의 탄압으로 착각했을 수도 있고 그 이후의 경험을 거꾸로 투영한 것일 수도 있지만, 이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이광수가 일본과의 첫 만남을 해방과 억압의 동시적인 경험으로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 최초의 장면을 통해서 이광수는 일본이 조선이 지향해야 할 문명이면서 동시에 조선에 대해 억압적인 존재임을 깨닫게 된 것이다.

이광수가 일본을 접한 두번째 사건은 일본 유학이다. 손병희가 주선한 일진회의 유학생으로 선발되어 이광수가 일본으로 떠난 것은 1905년 8월이었다. 그는 1906년 2월 학비중단으로 귀국하고 방랑하다가 1907년 다시 동경으로 가서 메이지 학원 중학부에 입학하여 1910년 3월에 졸업하고 오산학교 교사로 간다.⁹⁾ 이광수는 일본 유학 시절 톨스토이와 바이런, 고리키, 나쓰메 소세키를 읽으며 서구 근대와 일본의 문명과 문예, 그리고 제도를 배웠다. 동시에 그는 유학 시절 을사늑약(1905)과 군대해산(1907) 소식과 그에 대한 일본인과 일본 언론의 반응을 현지에서 보고 들었다. 조선 병합의 과정을 본국에서 직접 경험한 것이다. 그러면서 “동급생인 일본 아이들의 내게 대한 태도도 변하고 그들에 대한 나의 생각도 변하였다. 그들은 내게 적의를 보이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경멸하는

7) 이광수, 『나의 고백』, 220쪽.

8) 강창일, 『근대 일본의 조선침략과 대아시아주의』, 역사비평사, 2002, 212쪽.

9) 김윤식, 『이광수와 그의 시대1』, 한길사, 1986, 186쪽.

눈으로 나를 보았다.”¹⁰⁾ 가장 선진적인 문명이, 또한 가장 억압적임을 직접 경험한 이광수는 그것이 근대, 혹은 식민체제 자체가 가진 양가적인 성격임을 깨닫는 것으로 나아가지 않고 나 혹은 우리 민족이 강해져야 한다는 진화론으로 나아간다.

나는 다윈의 진화론이 마땅히 성경을 대신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해켈의 『알 수 없는 우주』¹¹⁾라는 책을 읽을 때에는 비로소 진리에 접한 것처럼 기뻐하였다.

“Struggle for life.”(살려는 싸움)

“Survival of the best.”(잘난 자는 산다)

이러한 진화론의 문구를 염불 모양으로 외우고 술이나 취하면 목청껏 외쳤다.

이렇게 되매 내 도덕관념은 근거로부터 흔들렸다. 착하신 하나님이 계셔서 세계를 다스린다는 믿음 위에 섰던 도덕은 여지없이 무너지고 말았다. 선이 어디 있느냐, 악은 어디 있느냐.

“Might is Right.”(힘이 옳음이다)

마키아벨리, 트라츠크¹²⁾의 정치론이 마음에 푹푹 들어갔다.

“힘이 옳음이다. 힘 센 자만 살 권리가 있다. 힘 센 자의 하는 일은 다 옳다!”

이러한 도덕관을 가지게 되었다.¹³⁾

이러한 진화론적 논리 속에서 문명으로서의 일본과 억압으로서의 일본은 분리된다. 전자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배움의 자세를 견지하고 후자에 대해서는 저항했다. 또한 전자에 대해서는 동화(同化)를 후자에 대해서는 이화(異化)의 욕망을 드러냈다. 그 어느 것이든 이광수에게 일본은 거울이었다. 일본은 조선의 미래를 보여 주는 거울이면서 동시에 그 시선이 되돌아와 조선의 현재를 비

10) 이광수, 『이광수전집7』, 228쪽.

11) 원문에는 해겔로 되어 있으나 해켈의 오식이다. 해켈(Ernst Haeckel, 1834~1919)은 독일의 생물학자이며 『알 수 없는 우주』는 Welträtsel을 일본어로 번역한 『宇宙の謎』(有朋館)를 가리킨다.

12) 독일의 역사가이자 정치학자인 트라이치케(Heinrich von Treitschke, 1834~1896)를 말함.

13) 이광수, 『그의 자서전』, 『이광수전집6』, 1971, 422쪽.

취 주는 거울이기도 했으며, 그것을 배제하거나 고정함으로써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하게 하는 거울이기도 했던 것이다.

3. 문명과 지배

이광수가 본 일본은 지금까지 우리 사회가 바라본 일본이기도 하고, 이것은 한국의 근대가 걸어온 길이기도 했다. 우리는 일본을 거울로 하여 민족을, 그리고 국민국가를 형성해 왔던 것이다. 그것은 모델이면서도 저항의 대상이었으며 문명이었고 동시에 억압이었다. 이광수의 글 가운데 전자의 면모를 가장 잘 보여 주는 것은 「동경잡신」, 그리고 「민족개조론」이다.¹⁴⁾

이 두 편의 글을 보기 전에 또 다른 이광수의 경험을 보도록 하자. 그것은 일본 유학에서 만난 조선과 일본의 관계를 다시 반복하는 것이었는데, 아래에 서술된 이광수의 경험은 유학 생활을 마치고 조선으로 돌아온 그가 본 조선의 첫 모습이다. 그것은 문명의 결여(야만)로서의 조선을 거울로 해서만 문명으로서의 일본이 발견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거꾸로 그것은 문명으로서의 일본을 거울로 해서만 문명의 결여로서의 조선이 발견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그때에 내가 부산역에서 차를 타려 할 때에 역원이 나를 보고 그 차에 타지 말고 저 찻간에 오르라고 하기로, 연유를 물었더니, 그 찻간은 조선인이 타는 칸이니 양복을 입은 나는 일본 사람 타는 데로 가라는 것이었다. 나는 전신에 피가 거꾸로 흐르는 분격을 느꼈다. 나는,

“나도 조선인이오.”

하고 조선인 타는 칸에 올랐다. 때는 삼월이라 아직도 날이 추워서 창을 꼭꼭 닫은 찻간에서는 냄새가 났다. 때문에 흰 옷을 입은 동포들이었다. 그때에는 머리

14) 「대구에서」나 「농촌계발」, 「조혼의 악습」, 「신생활론」 등도 일본을 표본으로 하여 조선을 개혁·계몽하고자 하는 이광수의 생각을 잘 드러내고 있다.

깎은 사람도 시골서는 흔치 아니하였고 무색 옷을 입은 사람은 더구나 없었다. 실로 냄새는 고약하였다. 그리고 담뱃대를 버티고, 자리 싸움을 하고, 침을 뱉고, 참으로 울고 싶었다. 나는 이 동포들을 다 이렇지 아니하도록, 그리고 모두 깨끗하고 점잖게 되도록 가르치는 것이 내 책임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러고는 내가 할 수 있는 대로는 말로 몸으로 그들을 도우려고 애를 썼다.

오랫동안 일본에 있다가 본국에 건너오면 언제나 가슴 아픈 것은 우리나라 산에 나무가 없는 것이었다.¹⁵⁾

염상섭 소설 「만세전」 주인공 이인화의 경우도 그러했지만, 민둥산과 비위생은 관부연락선으로 부산에 내린 조선 유학생들이 발견하는 조선의 첫 모습이다. 그것은 조선에 있을 때는 발화되지 않는 것으로서 일본과의 차이를 통해서만 ‘발견’되는 것이고 그러한 차이는 ‘문명/야만’이라는 이분법적 렌즈를 통해서만 발견되는 것이다. 야만이 있어야만 문명이 발견되며 문명이 있어야만 야만이 발견된다. 그것은 동시적인 일이라 할 수 있다. 야만적인 조선과 문명으로서의 일본이 거울로서 서로 마주보고 있을 때 그것은 가능하다.

조선인 차별에 대한 분격과 조선을 야만으로 재발견하는 것은 서로 모순된다. 조선이 야만이라면 차별은 당연한 것이고, 차별에 대해 분격을 느낀다면 조선은 야만이 아니어야 한다. 거꾸로 일본이 문명이라면 차별은 당연한 것이고, 차별에 대해 분격을 느낀다면 일본은 문명이 아니어야 한다. 이러한 모순 속에 이광수는 놓여 있었고, 평생 여기서 벗어나지 못했는데, 이는 한국의 저항 민족주의가 가진 특징이기도 했다. 1910년대 이광수의 논설은 이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

『매일신보』(1918. 9. 6~10. 19)에 실린 「동경잡신」은 도쿄에 유학 중인 이광수가 조선을 개조하는 방안을 단편적으로 제시한 글이다. 학교, 유학생의 사상계, 공수(工手)학교, 학생계의 체육, 총망(匆忙), 목욕탕, 경제의 의의, 근이기의

15) 이광수, 『이광수전집7』, 230쪽.

(勤而已矣), 명사의 검소, 가정의 예산회의, 후쿠자와 유키치의 묘를 배함, 문부성 미술전람회기, 지식욕과 독서욕, 일반인사의 필독할 독서 수종이라는 항목으로 구성된 이 글은 시종일관 ‘일본=문명’/‘조선=야만’의 이분법과 일본을 모델로 하여 조선을 개조하자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그러한 대조는 다음 인용처럼 철저하다.

대개 차교(此校, 도쿄 제1고등학교—인용자)는 천하수재의 집합처니, 수재는 흔히 신경질이라, 실의라든지, 나게(投げ, ‘투신자살’을 뜻하는 일본어—인용자)라든지, 인생문제 등 복잡유현한 철학문제에 정신을 과로하면 자연히 예민한 신경이 상쾌를 탈하기 용이한 것이라. 조선에는 자살자가 희소하니, 차는 자궁할 바가 아니요, 사상 정도의 저(低)함을 수치하게 여길 것이니, 인류 이하 저급부분에는 번민도 무하고 자살도 무하니라.¹⁶⁾

일본인의 안색을 견하면 우선 형형한 안모(眼眸)에 예기가 충일하며, 바싹 다문 입에 의지력이 표현되나니, 차는 오래 교육을 수(受)하고, 또 생존경쟁이 격렬한 실사회에서 오래 단련한 결과라. 반드시 체육의 효과라 언(言)키 불능하거니와, 시(試)하여 그 나체를 관하라. 흥부가 돌출하고, 양완에 근육이 발달하여 울뚝뚝하고 견(堅)하기 석(石)과 여하지 아니한가.(중략) 반(反)하여 조선을 관(觀)하라. 과연 어떠하뇨.¹⁷⁾

앞의 인용문은 자살조차 문명적 현상으로 파악하고 자살이 없는 조선을 야만으로 위치짓고 있으며, 뒤의 인용문은 “반(反)하여 조선을 관(觀)하라”에서 볼 수 있듯이 이 글의 서술 방법을 잘 보여 주고 있다. 또한 이 글은 수없이 문명 혹은 문명인, 야만 혹은 야만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일본과 조선을 대조하

16) 이광수, 『이광수전집10』, 300쪽.

17) 이광수, 『이광수전집10』, 306쪽.

고 있다. 예를 들어 “총망(惣忙, 분주함—인용자)은 실로 문명인의 휘장이니, 하국(何國)이 총망하면 그 국은 문명국이요, 하인(何人)이 총망하면 그 인은 문명인이라”¹⁸⁾라거나 “문명인과 야만인의 별(別)은 오직 지식 정도와 인격의 여하에 재(在)하므로”¹⁹⁾라든가, “조선인은 아직도 청결 사상이 보급치 못하여 입욕의 선(善) 습관이 무(無)하니, 차는 문명인의 체면에 심히 수치할 바이라”²⁰⁾라는 식이다.

조선과의 대조 속에서 문명으로서의 일본을 발견한, 거꾸로 일본과의 대조 속에서 야만으로서의 조선을 발견한 이광수에게는 일본은 문명과 근대, 그 자체였다고 할 수 있고, 그것을 표본으로 하여 조선의 개조를 노골적으로 역설한 것이 「동경잡신」이었다. 「민족개조론」(1922)은 문명의 범위가 서구의 근대국가로까지 확장되어 「동경잡신」만큼 노골적이지는 않지만, “역사상에 현저한 민족개조 운동의 실례”로서 “일본의 명치유신”²¹⁾을 내세우고 있다는 점에서 「동경잡신」과 궤를 같이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근대와 문명의 빛과 그림자를 모두 본 나쓰메 소세키나 루쉰²²⁾과는 달리 이광수가 그것에 대해 맹목이었다는 점은 이광수 연구자들을 망연케 한다. “제국주의의 세계를 민주주의의 세계로 개조하라. 생존경쟁의 세계를 상호부조의 세계로 개조하여라. 남존여비의 세계를 남녀평등의 세계로 개조하여라”²³⁾라고 주장하는 「민족개조론」과 「상쟁의 세계에 상애의 세계에」에서도 이 점은 다를 바 없었다. 근대와 문명에 대한 이광수의 맹목은 일본에 대한 맹목을 가져왔고, 이는 일본의 실상을 직시한 결과가 아니라, 어떤 점에서는 조선의 개조와 문명화를 위해 상상 속에서 문명으로서의 일본상을 만들어 온 것이라도 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다음과 같은 참회는 역설적으로 진실한 마음의 표출이라 할 수 있다.

18) 이광수, 『이광수전집10』, 303쪽.

19) 이광수, 『이광수전집10』, 302쪽.

20) 이광수, 『이광수전집10』, 309쪽.

21) 이광수, 『이광수전집10』, 120쪽.

22) 히야마 히사오, 『동양적 근대의 창출』, 정선태 옮김, 소명출판, 2000, 89~128쪽.

23) 이광수, 『이광수전집10』, 116쪽.

필자는 전후 십일 년 간 동경에서 생활했다. 대부분은 학생 생활이었으나, 그때 일을 회상할 때 나는 두 가지 유감을 느낀다. 한 가지는 나 자신이 일본을 배우고자 노력하지 않은 것으로, 이는 정말 바보스럽기 짝이 없었다고 후회하고 있다. 이는 특히 나 한 사람에게 국한된 일은 아니다. 당시의 유학생 거의 전부가 나와 똑같은 멍텅구리였다.²⁴⁾

이 인용문은 일본의 전통을 간과하고 일본 속에서 서구적 근대를 찾았음을 반성하는 맥락으로 발화된 것이다. 이는 서구적 근대로서의 일본의 근대를 비판하고 고대로 돌아가자는 일본낭만파의 논리에 닿아 있는 것으로서 또 다른 일본상을 발견/구축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진술 속에서 이광수가 그동안 봐 온 일본은 조선민족의 개조 방향인 문명으로서의 일본이었음을 역으로 확인할 수 있다.

문명으로서의 일본상과 더불어 이광수에게 공존하는 일본상은 억압자였다. 이광수에게 문명으로서의 일본상과 억압으로서의 일본상은 공존하는 것이었지만, 논리적으로는 연관되어 있지 않은 것이었다. ‘근대=문명’이 내재하고 있는 억압성을 그는 보지 못했거나 보지 않으려 했던 것이다.

관부연락선에서 내린 후의 조선 체험에서도 드러났듯이 억압으로서의 일본은 차별과 식민지 통치에 대한 분격으로 표현되었다. 이러한 일본상은, 검열하에 놓인 조선 언론과 출판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고 이광수가 기초한 2·8 독립선언문(「조선청년독립단 선언서」²⁵⁾)이나 상해 임시정부가 발행한 『독립신문』에 실린 글에서 엿볼 수 있다.

사기와 폭력으로 행한 우리 민족의 철천의 원한인 한일합병도 잠깐 말 말고, 합병 후 10년래 귀국 정부가 우리 민족에게 행한 포학도 말 말고, 3월 1일 이래로

24) 李光洙, 『內鮮一體隨想錄』, 中央文化協會, 1941, 16쪽; 이경훈 편역, 『춘원 이광수 친일문학 전집 II』, 250쪽.

25) 『이광수전집10』에 수록.

귀국 정부의 잔인불의한 행동이 우리 2천만 민중의 골수에 박힌 원한과 적개심만 하여도 수세기를 지나기 전에는 없어질 수 없는지라. 만일 귀국이 대학살을 실행하여 우리 민족을 섬멸하면 되거니와 그렇지 않고 다만 귀국 정부의 소위 불령선인(不逞鮮人)을 감옥에 가두며, 유위한 학생의 머리를 난타하여 뇌에 고장을 일으키게 하라는 수단으로는 우리 민족을 영원히 강압하기 불가능할지라. 귀국 정부가 보기에 우리 민족은 극히 열물(劣物)하고 우준(愚蠢)하여 칼의 위엄에 쉽게 전복(擧伏)할 듯하거니와 우리들은 실로 귀국보다 2배나 오랜 문화의 역사를 갖고 있는 민족이라. 비록 쇠약하였다 하더라도 귀국의 울흥(蔚興)에 강렬한 자극(刺激)을 받고 세계를 품미하는 자유의 사상에 민족정신의 새로운 불꽃을 얻은 우리 2천만 민중이 결코 다른 민족의 통치하에 만족할 수 없음이 분명치 아니하노.²⁶⁾

여기에서도 문명과 억압은 공존하고 있으나 논리적으로는 연관되어 있지 않다. 독립선언이 조선민족의 근대국가 건설을 목표로 하는 이상 근대=문명이 가진 억압적인 성격에 눈을 감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는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광수의 일본상은 문명과 억압으로 극단적으로 분리되어 있으면서 이 두 극을 왕래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광수에게 일본을 배우는 것과 일본을 배척하는 것 사이에는 아무런 모순도 존재하지 않는다. 「동경잡신」과 독립선언 및 『독립신문』 논설, 그리고 또다시 「민족개조론」으로 이어지는 극단적인 변신은 이러한 사실을 잘 보여 준다.

억압자로서의 일본상과 문명으로서의 일본상의 모순은 문명(문화)과 정치의 분리에 의해, 또한 후자의 유보에 의해 해결된다고 이광수는 생각했던 듯하다. “조선 병합 이래 조선인이 일본 국민이었음은 말할 것도 없지만, 은근히 문화단위로서 민족 관념을 지지해 왔던 것이다. 이를 민족주의라고 부르지만, 이 민

26) 이광수, 「일본국민에게 고하노라」(1919. 9. 18), 김사엽 엮음, 『춘원 이광수 애국의 글—상해 임시정부 기관지 ‘독립’에 무기명으로 쓴 항일논설 모음집』, 문학생활사, 1988, 57쪽.

족주의는 정치적인 것이 아니라 문화적인 것이었으며, 위정 당국도 그런 의미에서 인정해 왔던 것이었다²⁷⁾라는 말에서 볼 수 있듯이 이러한 문명(문화)과 정치의 분리와 후자의 유보가 이광수의 수양동우회 활동이었고 「민족개조론」의 사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비록 유보되어 괄호 속에 넣어 있었다고 해도 주권의 회복에서 자치 획득과 차별의 시정으로 이어지는, 일본에 대한 분격은 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그러한 분격이 더욱더 강렬한 일본=문명에 대한 지향으로 이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지금까지 보아 온 이광수의 일본·일본인상은 1930년대 후반 이후에도 기본적으로는 변하지 않았다. ‘민족주의자’에서 ‘친일파’로의 변신도 일본이라는 강한 문명에 대한 선망과 억압과 차별에 대한 반발은 변화시키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4. (의붓)아버지와 (양)아들

1938년 4월 시행된 제3차 조선교육령에 의한 조선어의 수의과목화, 1939년 『동양지광』을 필두로 한 일본어 매체의 등장, 조선인 문인협회의 설립(1939. 10)으로 인한, 조선인 작가와 일본인 작가의 동서(同棲) 등은 내선일체의 문학적·문단적 표현이었다. 이로 인해 조선어·조선문학은 경계 변화를 피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것은 일본제국의 확장과 또 다른 식민지의 등장에 따른 지역의 새로운 배치에 영향을 받은 것이었다. 일본인측은 조선어·조선문학을 독자적 민족어·민족문학에서 일본의 지방어·지방문학으로 위치지었고, 조선인측은 독자성과 지방성 사이에서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었다. 조선측의 이러한 반응은 일찍이 쓰다가타시에 의해 동화일체론과 평행제휴론이라는 명명을 얻었다²⁸⁾. 전자가 지방성을 강조한다면 후자는 독자성 쪽으로 기울어 있었다.

27) 李光洙, 「同胞に奇す」; 이경훈 편역, 『춘원 이광수 친일문학 전집 II』, 118쪽.

28) 津田岡, 「內鮮一體の基本理念」, 『緣旗聯盟』, 1939, 35쪽.

민족적 경계의 변화로 인해 문학에서도 이전과는 달리 어떤 방식으로든 일본을 새롭게 배치하지 않을 수 없었다. 동시에 그러한 배치에 따라 조선의 정체성도 새롭게 모색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둘은 동시적인 것인데, 문학에서의 가장 큰 변화는 일본어의 수용이고 내용에서는 일본과 일본인을 작품 내부로 끌어들이는 것이다. 일본어의 수용이라는 측면에서는 수용불가론(1938년 10월의 『경성일보 좌담회』)에서 조선어 8, 일본어 4의 배분(1941년 11월의 『국민문학』 창간)으로, 다시 일본어 전용(1942년 5월 이후 『국민문학』의 일본어 전용)으로 변해갔다. 그러나 작가 개인으로 보면 조선어 고수에서 이중어 사용, 일본어 전용으로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었고 그 이유도 제각각이었다.

조선어를 폐지한다고 일부에 떠드는 자가 있지만 이런 정책은 조선인의 감정을 도리어 악화해서 반대의 효과를 낳지 않을까 우려합니다. 조선의 언어문화 등 이런 것은 끝까지 보존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조선의 문화, 언어 등은 끝까지 보존하면서도 조선인은 진심으로 일본을 사랑하는 일본백성이 되고 친황폐하를 진심으로 자기의 임금으로 경배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리 하는 것만이 내선일체의 진정한 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²⁹⁾

위 인용문에서 볼 수 있듯이 이광수는 언어 문제에 있어서만은 일본어 수용 불가론이었다고 할 수 있다. 1944년에도 “사투리란 둘째 셋째의 문제이고 무엇보다도 국어(일본어—인용자)로 소설을 쓰고자 하는 것 자체가 도대체 무모하”³⁰⁾다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 이것은 일관된 생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르게는 “조선인의 생활, 조선인의 감정은 당분간은 조선어가 아니고는 완전히 표현되지 않는다는 것만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니, 여기 조선문학의 존재이유의 제일조가 있는 것”³¹⁾이라는 말로 표현되는 이광수의 이러한 언어관은 쓰다로 하여금 그를

29) 좌담회 「시국유지 원탁회의」, 『삼천리』, 1939. 1, 44쪽.

30) 「東京對談」, 『朝鮮畫報』, 1944. 1; 김윤식 편역, 『이광수의 일어창작 및 산문선』, 역락, 2007, 226쪽.

평행제휴론자로 분류하게 했다. 그러나 이러한 민족의 경계 조정기에서 이광수가 취한 입장은 동화일체론에 가깝다.

내선일체란 조선인의 황민화를 말하는 것이지 쌍방이 서로 접근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천황의 신민이 되겠다, 일본인이 되겠다라고 힘차게 나아가는 조선인 쪽의 기백에 의해서야말로 내선일체는 이루어지는 것이다.³²⁾

이는 일본 국민, 혹은 일본제국 신민이라는 이름 하에 조선민족과 일본민족이 각각의 문화를 보존한 채 하나의 국민이 된다는 평행제휴론과는 거리가 먼 것이다. 이러한 평행제휴론을 거부하며 이광수가 “조선인은 단지 일본 국민이 되는 것에 멈추지 않고 야마토 민족이 된다”³³⁾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 그것은 명백하다고 할 수 있다. 심지어 “저마다 신체의 어느 부분을 바늘 끝으로 찢어도 일본의 피가 흐르는 일본인이 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된다”³⁴⁾라는 데까지 나아간다. 그것은 조선민족이 “혈액적으로 정신적으로 병합되”는 “민족의 발전적 해소”³⁵⁾를 목적으로 삼고 있다.

이러한 민족의 발전적 해소론은 어떤 측면에서는 1920년대의 ‘민족개조론’과 동일한 논리에 의해 이루어져 있다.

나는 ‘천황의 신민이다’라는 새로운 굳은 신념 속에서 새로운 감각과 새로운 활력을 얻어서 새로운 생활을 건설하지 아니하면 아니된다.

조선인은 저마다 저를 개조하여야 한다. 제 인생관, 사회관을 한번 근본으로부터

31) 이광수, 「심적 신체제와 조선문화의 진로」, 『매일신보』, 1940. 9. 10; 이경훈 편역, 『춘원 이광수 친일문학 전집 II』, 105쪽.

32) 이광수, 「內鮮一體隨想錄」; 이경훈 편역, 『춘원 이광수 친일문학 전집 II』, 244쪽.

33) 이광수, 「朝鮮文藝の今日と明日」; 이경훈 편역, 『춘원 이광수 친일문학 전집 II』, 119쪽.

34) 이광수, 「황민화의 조선문화」, 『매일신보』, 1940. 7. 6; 이경훈 편역, 『춘원 이광수 친일문학 전집 II』, 76쪽.

35) 이광수, 「朝鮮文藝の今日と明日」; 이경훈 편역, 『춘원 이광수 친일문학 전집 II』, 119쪽.

터서 두들겨 고쳐서 행주좌와(行住座臥)에 몽매에라도 나는 천황의 신민이다, 일본인이다, 제국의 운명을 부담한 국민이다 하는 생각이 떠나지 아니하면 아니 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도록 저를 개조하지 않으면 아니된다.³⁶⁾

이러한 ‘민족개조론’으로서의 황민화가 이광수의 이 시대의 담론을 특징짓고 있는데, 이는 개인적 차별의 해소로서 일본화를 주장한 현영섭과 대비된다.³⁷⁾ 즉 민족 단위의 개조가 역으로 이광수의 민족적 정체성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자기 한 사람만 툭 튀어나와서 일본인이 될 리는 없는 것입니다. 조선인 전체가 한 사람도 남김없이 일본인으로 완성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그들은 완전한 일본인이 되는 것입니다”³⁸⁾라는 말은 황민화를 주장하면 할수록 민족적 정체성을 확인하는 역설을 잘 보여 주고 있다. 또한 “네가 만일 민족주의자일진댄 금후의 조선의 민족운동은 황민화운동임을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³⁹⁾라고 하여 이광수는 ‘내선일체’를 민족운동으로 위치짓기까지 한다.

여기에서도 일본은 또다시 조선인이 지향해야 할 모델, 다시 말해서 개조의 목표가 된다. 그것은 이전의 문명으로서의 모델과는 달리 강한 민족으로서의 일본⁴⁰⁾이다.

조선인은 이제는 결코 식민지인이 아니다. 약소민족도 아니다. 패전국민도 아니다. 위세가 융성한 대일본제국의 신민이다. 이것은 결코 허장성세가 아니다. 왜 그런고 하면 이제부터는 우리 자신의 역량 여하로는 일본제국의 모든 사업과 모든 영광에 참여할 수가 있게 된 것이 아니냐.⁴¹⁾

36) 이광수, 『황민화의 조선문학』; 이경훈 편역, 『춘원 이광수 친일문학 전집 II』, 76쪽.

37) 현영섭의 동화일체론에 대해서는 이승엽, 「조선인 내선일체론자의 전향과 동화의 논리」, 윤해동 외 편, 『근대를 다시 읽는다』, 역사비평사, 2006 참조.

38) 李光洙, 「行者」, 『文學界』, 1941. 3; 이경훈 편역, 『춘원 이광수 친일문학 전집 II』, 201쪽.

39) 이광수, 「국민문학의 의의」, 『매일신보』, 1940년 2월16일자; 이경훈 편역, 『춘원 이광수 친일문학 전집 II』, 63쪽.

40) 강한 민족에 대한 전망에 의해 황민화를 주장한 이광수를 어떤 연구자는 ‘친일 내셔널리스트’라고 부른다(조관자, 『민족의 힘을 욕망한 ‘친일 내셔널리스트’ 이광수』, 박지향 외 편, 『해방전후사의 재인식』, 책세상, 2006).

41) 이광수, 『황민화와 조선문학』; 이경훈 편역, 『춘원 이광수 친일문학 전집 II』, 76쪽.

해방 이후에는 일본민족에 협력함으로써만 조선을 보존하고 강한 민족으로 만들 수 있다는 논리로 바뀌지만, 여기서는 일본민족이 됴으로써만 조선을 보존하고 강한 민족으로 만들 수 있다는 논리를 펼친다. 이 둘 사이에는 깊은 심연이 있지만, 반대로 연속되는 측면이 있는데, 그것은 '강한 민족'에 대한 전망이다. 이는 문명으로서의 일본을 모델로 했을 때에도 마찬가지였다. 그것을 우리는 진화론에 대한 이광수의 견해에서 살펴보았는데, 거꾸로 보면 앞 시기의 문명에 대한 전망은 강한 민족으로 가기 위한 방편이라고 볼 수 있고 이것은 1940년대에도 마찬가지였던 것으로 보인다.

모델로서의 일본은 이 시기 '의붓아버지'로 표현된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자동적으로 조선을 '양'아들'로 위치짓는다. "조선, 대만 등 신부(新附)한 신민은 천황의 수양(收養)으로 하여서 신민이 된 것이니 이를테면 양자에 비할 것이"⁴²⁾고 "그건(꼬인 것—인용자)은 모두 양아들 근성"⁴³⁾이었다는 것이다. 심지어 해방 이후의 글인 「나의 고백」에서도 일본을 '의붓아버'로 표현하고 있다.⁴⁴⁾ 고아 혹은 양자, 서자에서 적자로, 의붓아버지에서 진짜 아버지로 가는 길이 1940년대 이광수의 민족개조론인 것이고 일본은 의붓아버지와 진짜 아버지 사이에 놓인 존재였다.

여기서도 일본은 모델이 된다. 문명/문명의 결여(야만)라는 잣대는 일본성/일본성의 결여로 바뀌지만 거울로서의 일본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조선은 일본의 시선을 통해 보아야만 조선이 되며 그 반대도 성립한다.

식사도 일본식 식사로 개량하자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일본식 식사는 다 먹을 수 있는 분량만 떠 놓으니까 펍 경제적입니다. (중략)
다음은 식사 예의인데 식사 예의가 없는 것은 조선뿐입니다.⁴⁵⁾

42) 이광수, 「일본문화와 조선」, 『매일신보』, 1941. 4. 22 ~ 5. 1; 이경훈 편역, 『춘원 이광수 친일문학 전집 II』, 230쪽.

43) 李光洙, 「同胞に奇す」; 이경훈 편역, 『춘원 이광수 친일문학 전집 II』, 126쪽.

44) 이광수, 「나의 고백」, 『이광수전집』, 227쪽.

45) 이광수, 「생활도 결전적」, 『매일신보』, 1942. 1. 13; 이경훈 편역, 『춘원 이광수 친일문학 전집 II』, 320쪽.

이러한 구절들은 「동경잡신」에 옮겨 놓아도 조금도 이상하지 않다. 논리 구조가 동일하기 때문이다. 다른 글에서는 조선인은 거짓말을 한다, 책임 관념이 희박하다, 이기적이다, 심사숙고가 없다는 결점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며 이것을 “일본인의 혼이 결여”된 때문이라고 한다⁴⁶⁾. 이는 ‘문명=일본’/‘문명의 결여=야만=조선’의 구도가 변형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 둘 다 일본을 거울로 하여 조선을 개조하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문명으로서 일본을 거울로 삼았을 때나 지금이나 이광수는 일본을 이상화시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이 일본을 찬양하기 위해서라기보다 조선을 개조하기 위한 방법의 측면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도 이광수 사상의 연속적인 측면이 발견된다.

5. ‘표상’으로서의 일본에서 ‘현상’으로서의 일본으로

이광수에게 일본은 조선을 바라보기 위한 거울이었다. 거꾸로 일본은 조선을 거울로 해서만 바라보이는 상이었다. 거울은 고정되지 않으면 자신을 비춰 주지 않는다. 자신을 비추기 위해, 그러니까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하기 위해 이광수는, 그리고 우리들은 일본을 단일한 상으로 고정시켜 왔던 것이다. 어떨 때는 문명으로서, 또한 어떨 때는 억압으로서 단일하고 고정된 일본이라는 거울을 통해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아 왔던 것이다.

아렌트의 용어로 하자면 우리에게, 그리고 이광수에게 일본과 일본인은 ‘무엇’(what)이었지 ‘누구’(who)는 아니었다.⁴⁷⁾ ‘무엇’이라고 타자를 표현할 때 그것은 예측 가능한 어떤 표상(representation)을 가리킨다. 그것은 고정된 정체성을 전제하는 것이며 타자에 의한 자신의 변화 가능성을 거부하는 것이다. 그에 반해 ‘누구’는 타자에 대한 예측을 포기할 때, 그러니까 고정된 정체성이 배반될 때, 표상에 균열이 생길 때 일어나는 현상(appearance)을 가리킨다. 우리로 표상

46) 李光洙, 「兵役と國語と朝鮮人」, 『新時代』, 1942. 5; 이경훈 편역, 「춘원 이광수 친일문학 전집 II」, 337~341쪽.

47) 아렌트의 ‘무엇’과 ‘누구’에 대해서는 사이토 준이치(齋藤純一), 「민주적 공공성」, 윤대석·류수연·윤미란 옮김, 이음, 2009, 60~65쪽 참조.

하는 세계가 단일하지 않듯이, 그리고 고정되어 있지 않듯이, 일본으로 표상되는 타자도 단일하지도 않으며 고정되어 있지도 않다는 점에서 일본은 표상으로 포착되는 '무엇'이라기보다 현상으로 드러나는 '누구'이다. 근대 이후 형성해 왔던 일본이라는 거울(정체성)을 깨뜨리고 우리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의 사건으로서 일본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일본과의 대화가 가능해질 것이다. 이것이 20세기의 양국 관계를 되풀이하지 않는 하나의 대안적인 길이다.

다. 일본인들은 칼과 꽃을 동시에 사랑한, 이해하기 힘든 민족이었다. 일본의 전사적 정신은 일본을 식민지로 전락시키지 않고 강력한 근대국가를 이룰 수 있게 해주었지만 동시에 일본을 나라에 떨어뜨렸다. 윤치호는 이 모순적인 일본이라는 실체에 직면하여 그것을 헤쳐 나가려 노력했지만 좌절하고 만, 식민지사회의 지식인이었다.

주제어: 윤치호, 사회적 다원주의, 전사적 정신, 민족주의, 협력

일본이라는 거울: 이광수가 본 일본·일본인 | 윤대석

투고일자: 2010년 6월 1일 | 심사일자: 2010년 6월 23일

한국 소설에는 인물로서 일본인이 등장하지 않는다. 한국 소설에 일본과 일본인이 있다면, 그것은 과도하게 추상화·정형화된 존재일 뿐이다. 민족이 상상의 공동체라면 소설은 공동체의 상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타자의 배제를 통해서만 민족적 공동체가 상상되는 것은 아니다. 일본은 정형화(고정)됨으로써만 우리를 비춰줄 수 있는 거울이기도 했다. 이러한 근대 이후의 일본상은 이광수라는 문제적 인물을 통해 잘 드러난다. 이광수에게 일본은 해방(문명)이면서 동시에 억압(지배)이었다. 우선 일본에 유학했던 이광수는 일본의 문명을 근거로 하여 조선의 개조를 시도한다. 그러한 점에서 이광수에게 일본은 우리가 좇아야 할 문명으로서의 거울이었다. 그에게 일본은 근대 자체였으며, 그런 점에서 일본에 대한 어긋난 상을 그린 셈이지만, 그것은 조선의 근대화를 위한 전략이기도 했다. 1938년을 경계로 하여 서구적 문명으로서의 거울은 탈서구(일본주의)로서의 거울로 바뀌지만, 일본이 모델인 점은 변함이 없었다.

반면에 이광수에게 일본은 조선을 식민지로 지배하는 억압적 존재이기도 했다. 그가 2·8 독립선언서를 기초하거나 임시정부에서 일을 한 것은 이러한 인식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광수는 근대적 문명에 이미 억압과 지배가 내재되어 있음을 인지하지 못하고 그러한 억압을 특수한 것, 예외적인 것으로 파악하였다. 1938년을 기점으로 이러한 억압으로서의 일본은 이광수에게 있어 식민지배에서 민족적 차별로 전환되지만, 그것을 넘어서기 위해서 또다시 모델로서의 일본에 의존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닌다.

주제어: 정형화, 해방, 억압, 문명, 거울

반일을 통한 또 다른 일본 되기: 이승만 대통령의 대일인식 | 박태균

투고일자: 2010년 6월 5일 | 심사일자: 2010년 6월 23일

이승만 대통령의 반일의식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이승만 대통령은 그의 재임 기간 동안 강한 반일의식을 표출하였으며, 그의 반일이데올로기는 통치이데올로기의 일환으로도 이용되었다고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이승만 대통령의 재임 시 발언을 보면 단지 민족주의적 입장에서 반일의식을 표출한 것은 아니었다고 판단된다.

우선 그의 반일의식은 미국의 아시아정책에 대한 불만에서 시작되었다. 이승만은 일본을 중심으로 하는 미국의 대아시아정책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갖고 있었다. 일본은 태평양 전쟁 시기 미국의 적대 국가였고, 오히려 한국은 냉전의 최전선에서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미국의 냉전정책에 복무했기 때문에 한국이 미국의 아시아정책의 중심이